

2022  
+ Bernard  
2022



3대리구 갈밭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5주일 2022. 07. 10. (다해) 제2329호

제1독서 신명 30,10-14 화답송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25-37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열린 사랑, 열린 세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얼마 전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설립이념처럼 그 활동가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국경을 초월해서 일하고,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아픈 이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계선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유다인을 자처하던 사제와 레위인 그리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전자는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멀찍이 지나쳐 가버리는데 후자는 쓰러진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고통을 떠맡습니다. 이방인 혼혈이라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다인의 이웃이 되어준 것이지요.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서 이웃 사랑은 일반적으로 같은 핏줄이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사이의 관계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사랑해야 할 이웃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며 이웃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물론 나와 관계없이 보이는 사람에게 열린 사랑으로 다가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까운 이들끼리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내는 삶에 그냥 만족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응답이겠지요. 날마다 우리는 ‘삶의 길가’에 쓰러진 이를 지나쳐 가는 무심한 행인이 될지, 아니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끼리끼리만 위하는 닫힌 사랑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가속화하지만,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더 많은 이들을 품는 열린 사랑은 ‘국경 없는 이웃’으로 가득한 열린 세상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두 팔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필문**

# 향유를 부은 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대개의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난 일에 분노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려 노력하지만, 삶이란 게 상식적인 것만도 합리적인 것만도 아니라서 모순된 상황 앞에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다. 상식에 벗어난, 그리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여인은 저지르고 만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마르 14,5)

향유 이야기는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마르 14,1-2)와 유다의 배반(마르 14,10-11) 사이에 위치한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죽어가는 예수의 이야기 서두에 여인의 이야기가 위치한다. 사람들은 예수의 수난을 기억하는데 부족했거나 무관심했다. 그렇다고 세상을 비난하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무지를 탓할 수만은 없다. 향유가 돈의 가치로 계산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가난한 이들을 향한 관심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합리적 판단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상식과 합리성은 여인의 도유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시간에 버젓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또 한번 무릎 꿇고 만다. 죽음을 애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산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단하여 애도하는 건 모욕이며 저주에 가깝다. 장례를 위한 도유는 무덤에 있는 주검을 위한 상식적 행위이지 산 사람의 세상에선 이해될 수 없는 폭거나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예수의 주검에 도유하기 위해 부활 아침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상식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비상식과 대립한다(마르 16,1 참조).

예수는 여인의 도유를 이렇게 평가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마르 14,9) 여인은 향유를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향유를 특별히 사용했다. 이 특별성은 죽음을 복음으로 바꾸어내는 단초를 제공했고, 죽음과 관련된 행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리라는 비상식의 놀라움을 생산해냈다. 죽음과 생명을 굳이 갈라놓는 우리의 선입견 너머에 펼쳐지는 여인의 특별한 직관은 새 세상을 위해 거처야 할 관문인 셈이다. 죽음을 기쁨으로 고쳐놓고 마는 특별한 생각이 상식이 되는 세상, 우린 이런 세상을 하늘나라라고 부른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없다. 사람은 각자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들이니까. 상식과 합리성은 어쩌면 다수가 만들어놓은 폐쇄적 인식의 산물이 아닐까. 예수의 수난과 죽음은 다수가 기다려 온 메시아의 행보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예수를 돈과 바꾸어 버린 유다의 경우가 세상의 눈에 분명하고 마땅한 것일테니(마르 14,11). 그럼에도 세상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가 있다. 그 가치 전복을 복음은 가르치고, 우리 역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폭력 안에서도 평화를 외치고, 불의한 일 안에서 선을 지향하며, 심지어 악하고 더럽고 불편한 이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깨치고 전하는 일이 신앙의 일이라는 사실은, 상식과 합리성에 기대거나 숨어지내는 우리의 비겁함과 안일함을 질타한다. 여인의 이름을 복음은 알려주지 않는다. 아마 그녀의 특별한 직관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밀쳐내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체적 삶으로 육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그 육화를 통한 그녀의 일은 지금 우리에게 낯선 기억일까, 기쁜 소식일까. 제 삶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따지며 사는 우리는 진정 예수를, 그의 수난을 받아들이기는 하는 걸까. **필문**

## 교황,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전령 되라고 초대

2022년 6월 28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시권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청소년관광정상회의(GYTS) 참가자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교황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희망과 부활의 전령이 되라고 당부했다.

세계청소년관광정상회의는 “관광 분야에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UNWTO)가 개발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세계청소년관광정상회의는 다양한 국제 행사, 워크숍, 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식 누리집은 이번 행사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전, 제안을 나누고 토론하는 특별 플랫폼을 마련한다.”라고 밝혔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 시간을 쪼개 기도하는 이들

교황은 제1회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기쁨의 인사를 전했다.

교황은 “아직 학생인 여러분에게 관광은 방학 기간과 맞물린다.”라며 “이 시기의 경험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식과 여가 활동 외에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자발적으로 연대 활동에 나서 도움을 주며 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게에 도움을 주거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도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자신들의 여정에서 빛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침묵하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 책임 있게 행동하기

교황은 성숙한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그리고 책임 있게 쓰라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힘든 일을 맡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영상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강조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미래를 위한 희망과 부활의 전령이 되길 바랍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 문산(文山)에서의 일정

1월 10일 수요일, 11일 목요일

방문에 따른 일상적인 일 외에 나는 학교 문제도 유력한 교우들과 외교인들과 함께 취급했다. 학교는 준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적어도 얼마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선의(善意)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다. 장소가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 본당은 선교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주 위치가 좋지만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작은 마을이어서 아주 나쁘다. 이전에는 여기에 학교를 건설하려는 열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읍내 아이들은 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읍내 학교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빛을 지지 않도록 교구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잘못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1월 12일 금요일

카넬 신부와 나는 오늘 아침에 마산포를 떠났다. 추위는 아주 심했고, 여러 번 말에서 내려야만 했다. 우리는 마산포에서 소촌(召村)까지 이르는 120리에 일본인이 만든 새 도로를 따라갔다. 도중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멈췄다. 거기서 또 15리 떨어진 곳으로 중부성사를 주러 가야만 했고, 우리가 소촌에서 20리 떨어진 곳까지 우리를 마중 나온 김 베드로[金命濟] 신부를 만났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다. 횃불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 이 긴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었다.

1월 13일 토요일, 14일 일요일

문산(文山)이라고도 불리는 소촌을 방문했다. 공소집은 옛날 관공서 건물이었다. 옛날에 여기에 왕의 곡식 창고가 있었고, 현재의 본당이 된 건물들은 이 때문에 남은 것이다. 신부가 살고 있는 집은 현감(縣監)의 옛날 집인데, 한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훌륭해 보인다. 성당은 사실 곳간으로 남아 있었다. 김 베드로 신부는 성당을 수리할 생각이다. 남학교는 아주 잘 되어가고 있지만, 학교를 지속시키기 위한 신부의 재정적 계획이 좀 위험스럽다.

1월 15일 월요일

카넬과 김 베드로 신부와 함께 마산포로 돌아가는 데 오래된 한국 도로를 택했다. 그 길은 20리가 더 단축되었지만 더 힘들었다.

1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에 마산포에서 떠나 오후에 부산에 도착했다. 아주 환대를 받았다. 일본인 교우들은 체면치레를 하지 않아서 특별히 감화를 주었다. 시장(市長)인 시가(志賀)를 선두로 모든 사람이 강복을 받기 위해 역 구내에서 무릎을 꿇었다.

# 농민주일 우리농장터

일시: 2022. 7.17(일)  
Am 7:00 ~ Pm 12:00

장소: 계산성당, 월성성당

주최 | 대구대학교 생태환경위원회  
안동가톨릭 농민회

# 김수환 추기경 사진전

2022. 7. 13(수)~19(화)  
주교좌 범어대성당 內  
드망즈 갤러리

| 전시 문의 |  
053)790-1300,  
010-5254-9208

#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유고집 출시 판매

출판 | 앞산밀북카페 가격 | 12,000원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 「가정을 위한 기도」 기도서 출간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구입문의 | 053)250-3077-3114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즐기기

## 기후변화(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피조물을 보살피고 자선을 실천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 말씀의 해 안내지 78호 정답

1. ① 2. 의로움, 절제, 다가오는 심판 3. 에우라킬론, 몰타 4. 중, 사도, 하느님의 복음

알고만 있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루카 10.27)

.....

나 역시 ...

주님의 말씀대로 ...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 미사 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6일(토) 11: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7월 16일(토) 11:00 성모당

### 수도회 성소 | 피정

####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7.16(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7.23(토) 11:00~16:00

장소: 우이동 명상의집

문의: (010)6804-4904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시간 및 장소: 수시 문의,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7.19(화)~20(수)

시니어: 7.26(화)~27(수)

문의: (054)382-0091

####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7.21~23 / 7.30~8.2 / 8.6~9 /

8.12~15 / 8.20~22 / 8.26~28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주제: 링크, 다시 연결하기

중고등부: 8.9(화)~11(목), 산청 성심원

일반부: 8.13(토)~15(월)

장소: 경기 양평 가리따스 피정의 집

문의: 김종관 신부, (010)6608-3217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 교구 외 | 기타 알림

####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의(9월 개강)

영신수련 정기강좌

삼위일체하느님과 영적성장

구약성경 아카데미

가톨릭 신앙과 영성

신청: http://center.jesuit.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질환  
요로결석(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아네스)

**윤영희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희 바로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 ↔ 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북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교구 | 대리구 알림**

**하계 사제 성소 피정**

중1~2: 7.18~20, 군위청소년수련원  
 중3~고2: 7.20~22, 군위청소년수련원  
 고3·대학·일반: 7.26~28, 한티피정의집  
 대상: 예비 신학교 등록생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제126차 선택주말 신청**

일자: 7.29(금)~31(일)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대상: 만 25세~35세 청년  
 정원: 30명 / 신청비: 12만원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보람(소피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성주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자, 신앙생활 충실하신 분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마감: 7.31(일)까지  
 문의: (054)933-312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미술심리상담사, 우쿨렐레,  
 제대꽃꽃이, 사군자문인화, 고전무용

프랑스자수,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캘리그래피, 장구, 오카리나, 서양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성기양로원(무료/실비)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실비입소자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취득반 모집**

개강: 9.2(금) / 종강: 12.4(일)

교육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자격: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9차: 7.22(금)~24(일)  
 390차: 8.12(금)~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토요성령기도회**

일자: 매주 토요일 14:00~17:30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 집)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3:00 출발  
 문의: (054)954-3091

**그레고리오성가 수강생 모집(10기)**

개강 및 시간: 7.17(일) 매주 14:00  
 장소: 공평동 톡징베네딕도 베네센터  
 신청: 7.14(목)까지  
 내용: 기본이론(15주) 및 실습(30주)  
 사전문의(필수): (010)2805-8504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외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명덕 호 영양병원**  
 (부설) 백화원장례식장  
 인공신장투석전문영양병원  
 ■ 진료과목 내과·가정의학과·외과·한방과  
 병원장 변숙영(세라피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7 (교대 옆)  
 TEL : (053)476-0000 FAX : (053)476-0011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문소독(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Sc 현대S라이프**  
**크루즈, 웨딩, 장례 상담**  
**라이프플래너(LP) 모집**  
 상담전화 **1566-1678**  
 (본사 대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살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